

[카드 뉴스] 디지털금융 시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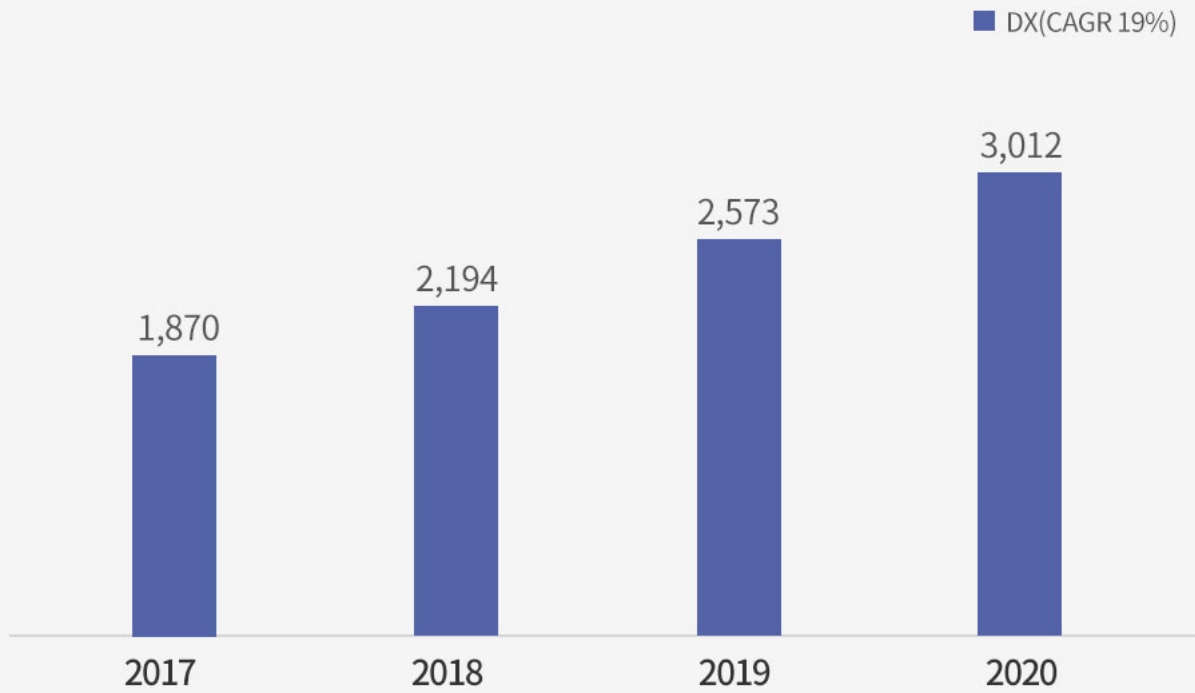
디지털금융 시대,

블록체인 기반 DID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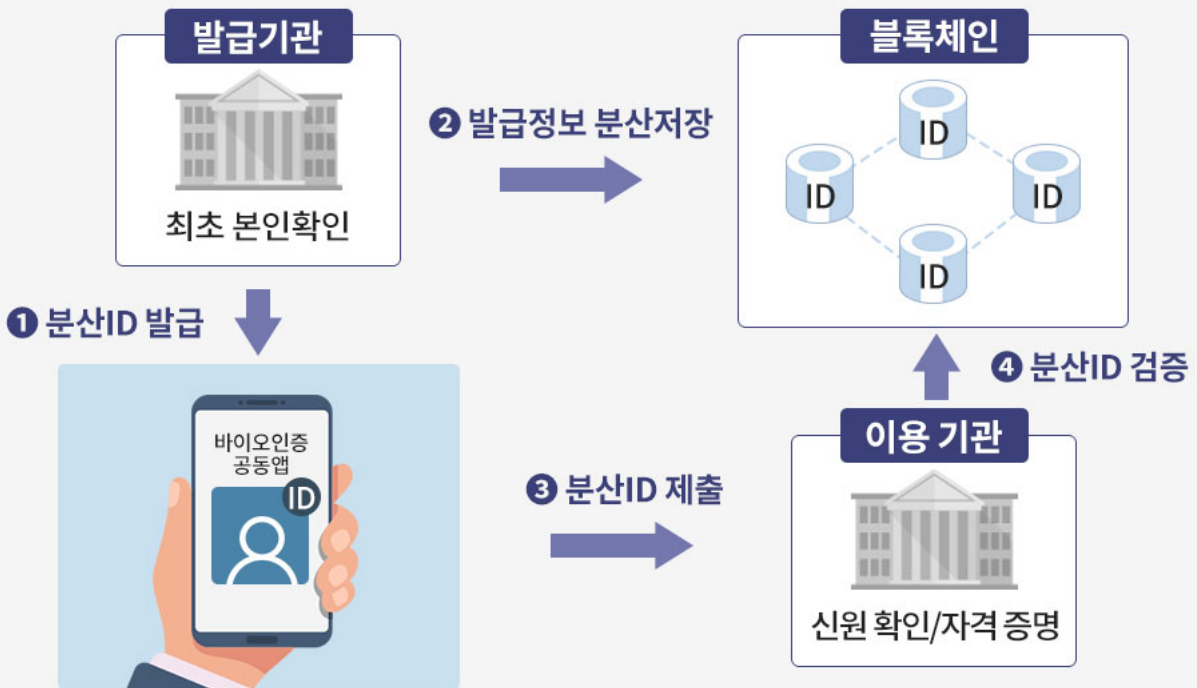
-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 2,000억원대로 성장, 2020년에 3,012억원 돌파 예상



<출처: IDC Korea, Zion Market Research 'Markets and Market' 보고서>

디지털 분산신원확인 시스템 DID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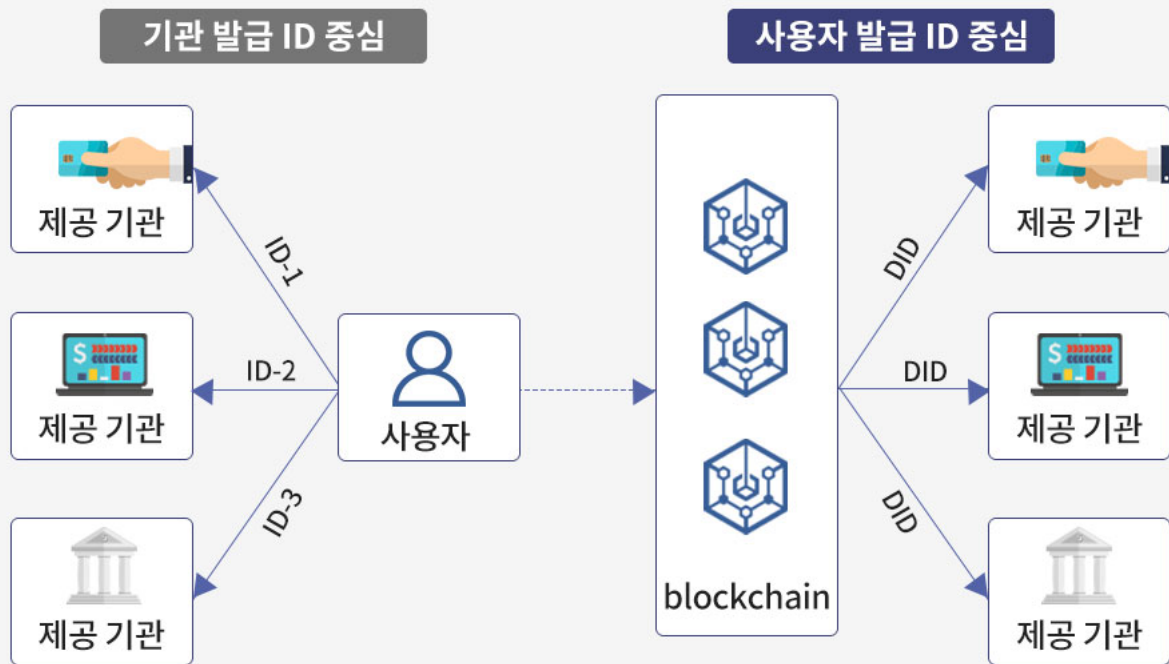
- 디지털 환경 속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확인 시스템 DID
- 최초 본인확인 후 발급된 정보 분산 저장, 최초 1회 등록 후 저장 정보로 신원확인 가능



<출처: 금융결제원 DID 구조도>

기존 신원 인증과 DID 차이점

- 기존 신원확인 시스템은 기관이 직접 고객정보 확인 후 ID 발급, 제공 기관 중심 프로세스
- DID 시스템은 확인 주체가 블록체인 환경으로 변모,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



<출처: 데이터넷>

네덜란드의 블록체인 기반 DID 활용

- 네덜란드는 블록체인을 DID, 산후 조리, 정부 보조금, 독성 폐기물 처리 등에 활용 중
- 10년 전부터 DID 인증 수단인 'DigiD' 발행 시작, 1,350만명의 네덜란드 DigiD를 사용

구분	내용
DID	국민들의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상담 등에서 실제 활용 중. 캐나다도 여권 없는 여행 시범 서비스 추진
산후 조리	보험사와 연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산후조리사의 출퇴근 시간 등을 기록할 필요 없이 편하게 보험금 신청 가능, 즉시 비용 정산
정부 보조금	의료보험,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형태로 제공
	향후 암스테르담 포함한 15개 도시로 확대 적용 예정, 전기차 보조금 등도 적용 검토
독성 폐기물 처리	독성 폐기물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마다 라이선스 확인 등 번거로운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축소
	유럽연합(EU)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 중

FATF, DID 환경 대응 자금세탁 지침 초안 발표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DID 시대에 발맞춘 가상화폐 자금세탁 지침 마련
- 10월 총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시 고객정보 확인 국제기준 적용 지침서 초안 공개
- 인/허가 혹은 신고 등록, 자금세탁방지 규제/감독, 예방조치 이행 등에 대한 조항 포함

주석	상세 내용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는 감독 당국에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 범죄자의 암호화폐 진입 차단, 미신고영업 제재
자금세탁방지 규제/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당국은 효과적인 감독 수단 보유 - 거래소 의무 위반 시 허가/신고 취소/제한/중지
예방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 암호화폐 송금인/수신인 정보, 당국 필요 시 제공

<출처: 서울경제>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